

교수협의회 질의서에 대한 총장후보대상자 답변

자료출처: 교수협의회

10월 12일 교수협의회는 5명의 총장후보대상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전하며 10월 22일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심종혁 후보를 제외한 네 후보가 교수협의회에게 답변을 전달했다. 본보는 교수협의회를 통해 해당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단독 입수했다. 아래는 교수협의회 질의 내용과 총장후보대상자들의 답변이다.

<교수협의회 질의서>

하나, 지난 1년 가까이 지속해 온 본부와 재단의 갈등 상황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그 해결 및 극복 방안을 밝혀주시시오.

하나, 문제해결의 첫걸음일 수밖에 없는 교수단의 학교 운영 협치 참여방안, 교수단의 공식조직화에 대한 의견을 확실히 천명해 주십시오.

하나, 막연한 교육목표나 허황한 발전계획이 아니라 지금, 여기 당면한 과제인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교육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업계획, 특히 서강의 정체성과 미래와 관련된 자세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시오.

<총장후보대상자 답변>

1. 심종혁 후보 답변

* 심종혁 후보는 교수협의회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음.

2. 허남희 후보 답변

하나,

지난 1년 가까이 지속해 온 본부와 재단의 갈등 상황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그 해결 및 극복 방안을 밝혀주시시오.

답변: 재단과 본부가 제반 학내 문제를 긴밀하게 논의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이지만, 서강학보에 나온 인터뷰 기사를 보면 의견의 차이가 우리 서강 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서강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노력해서 하나의 서강을 만들 수 있는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강 학보

하나,

문제해결의 첫걸음일 수밖에 없는 교수단의 학교 운영 협치 참여방안, 교수단의 공식조직화에 대한 의견을 확실히 천명해 주십시오.

답변: 교수, 직원, 학생, 예수회, 그리고 동문회는 아주 중요한 우리 서강의 구성원입니다. 각 직능을 대표하는 단체와의 협치는 미래 서강의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고, 협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하나,

막연한 교육목표나 허황한 발전계획이 아니라 지금, 여기 당면한 과제인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교육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업계획, 특히 서강의 정체성과 미래와 관련된 자세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서강의 발전 전략에 대한 구상이 담긴 자료를 법인에 제출하였습니다. 아마도 요약본은 다음 주 중에 게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강의 부족한 재원을 정부 연구비를 통해서 교육, 연구 개발, 가치 창출, 적립금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과 디지털 능력을 겸비한 통섭형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심화 전공 과목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중심의 소규모 수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3. 강영수 후보 답변

보내주신 메일 고맙게 잘 받아서 읽었습니다. 교수협회의 입장과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총장 추천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총장후보자는 사적으로 총추위원을 접촉해서는 안되며 (제8조 2항), 선거 운동 금지 (제16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총장추천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셔서 받으셔서 필요하신 질문이나 기타 사항은 총장추천위원회를 통해서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는 것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후보자가 해드릴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관심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이종진 후보 답변

교수협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

2020. 10. 22. 총장후보자 이종진

정유성 교수협의회 회장님께서 대답을 요청한 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1. 본부와 재단의 갈등 상황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및 극복 방안

본부와 재단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역시 2017년에 발생한 서강기술지주회사 내의 제1호 자회사였던 (주)에스메디의 불법적인 저가 매각에 대한 외부감사인들의 감사 지적과, 이에 따른 본부의 단호한 후속 조치였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 중의 하나가 전 상임이사인 예수회의 모 신부였고, 본부는 이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안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불법적인 방식으로 유출된 학교의 자산을 되찾기 위해서 본부는 ‘검찰 진정’이라는 법률적 수단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법인의 이사장과 새로 선임된 현 상임이사는 거의 4년 내내 본부의 학사업무에 부당한 개입을 일삼으면서 심각한 업무방해를 해왔고, 여기에 몇 사람의 이사들이 동조하면서, 급기야 총장해임이라는 카드로 근 1년간 현 총장님을 겁박했습니다. 그리고 총장해임이 여의치 않자 법인 이사회는 회의록 서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총장해임을 반대해온 이주연 이사를 전격적으로 해임함으로써, 서강의 역사에 씻기 힘든 또 하나의 얼룩을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본부와 재단의 갈등은 예수회 신부들 간의 내분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과 정신의 충돌이고, ‘영들의 투쟁’입니다. 곧, ‘공정과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저는 현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들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해결책만을 한 가지 제 편에서 제시합니다. 이것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안들도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회 한국관구의 결단입니다. 예수회가 사실 이런 갈등의 중심에 서 있고, 가장 큰 책임을 져야만 하는 집단입니다. 자질과 자격이 못 미치는 인사들을 이사장과 상임이사로 파견한 전 관구장의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행태가 현재의 사태를 키운 것입니다. 예수회 내의 협의체에서는 이들을 이런 직무에 추천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인의 예수회 이사들에 대한 인적 쇄신’이 이루어져야만 학교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회가 자격을 갖춘 회원들을 발견해서 파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면, 과감히 이사장직과 상임이사직을 총장직과 마찬가지로 비예수회원들에게 개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회 이사들의 수를 3분의 1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법인 내에서 예수회의 교육이념을 대변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회 본부와 학교법인이 실질적으로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어른스럽고, 덕스럽게 행동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회 내에서 리더십의 책임을 맡은 회원들은 종교적 가치에 투신한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모습으로 되돌아감과 동시에, ‘도덕성’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도덕성을 상실

한 종교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이익이 되겠습니까? 예수회와 학교법인은 아직도 남양주 사태에 대해서 진정성 어린 사과를 서강의 구성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회는 대외적으로는 ‘사회정의’의 가치를 그토록 강변하면서, 서강 안에서는 왜 그리도 완고하게 반대 방향으로만 가려 하는지, 참으로 답답한 모습입니다.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법인이 개혁되지 않는 한, 서강의 혁신과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기성찰과 자기비판의 정신을 망각한 종교집단은 결국 ‘속(俗)’에 의해서 정화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해결 방향이지만, 이 정도로만 언급하겠습니다.

2. 교수단의 학교운영 협치 참여방안, 교수단의 공식조직화에 대해서

우리의 학생들에게 수월성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립대학교의 경우에 ‘법인’과 ‘본부’, 그리고 ‘교수단’의 협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부는 학교운영주체인 법인의 지시를 받아서 학교의 정책들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집행부’입니다. 법인과는 ‘갑’과 ‘을’의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법인이 도덕적인 권위를 존중받으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갑’의 역할을 하는 대신에, 힘을 앞세워 비이성적인 ‘갑질’을 일삼는다면, 이를 제지할 방도가 딱히 없습니다. 교육부의 중재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학내에 문제가 발생하면, 학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교수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강의 교원들은 그저 교원들 개인의 복지에만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쳐서는 안 되는, 사회적인 공공선에도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지성인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교수협의회가 더욱 발전해서 보다 많은 교수님들이 학내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과 의견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대사회적으로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용기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수단이 보다 외연을 넓히고, 학내외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미 기획처장직을 수행하면서 교수회의 구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했고, 교수단이 새롭게 발족하게 되면 필요하게 될 공간도 물색하는 등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저의 이런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쪼록 교수협의회가 면모를 새롭게 해서, ‘공식적인 조직’으로서 학교운영과 발전에 기여하는 협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인과 본부의 역할과 노력만으로 학교운영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때, 마지막까지 서강의 보루가 되어야 할 집단은 역시 본교 교수님들의 협의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교육에 대한 서강만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제가 일단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On-line 교육의 확대에 따른 ‘관리시스템 구축’ 및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교수학습센터>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업무

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력이 계속 보강되어야 하는 관리체계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COVID-19 이후의 시대에 부응하는 체계적인 'On-line 교육 관리시스템'을 시급하게 구축함으로써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서강 교육의 수월성이 새로운 차원에서 업그레이드 되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하나의 가능한 방안은, 교수학습센터를 다시금 교무처 산하에 두고, 학사지원팀의 업무분장에 포함시킴으로써, 단일 관리시스템 하에서 필요한 모든 교육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 효율성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방안입니다.

내용적으로, 뉴노멀 교육에 대한 서강만의 청사진과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은 조속히 마련해야 할 더욱 중요한 사안임에 틀림없습니다. 현 집행부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TF를 계속 가동시키면서 이 과제를 수행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기본 개혁안은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 커다란 그림은, 올 한해 1학기 전면 비대면 수업, 2학기 부분 비대면 수업 시행을 통해서 얻게 된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의 황금비율을 찾는 길입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교육부에서 온라인 교육 관련 시행세칙이 전달되면, 이를 참고해서 본교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교과목별로 비대면 수업이 효율적인 과목들은 계속 이런 방식을 취하고, 남은 인력으로 중급, 고급 과목에 투여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경제학 원론', '경영학 원론' 등 동일교과목 분반이 많은 과목들을 동영상 강의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수학과 및 전인교육원 교양필수과목들의 경우도 팀티칭 동영상 강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간점검 결과 현재 학교에는 동영상 강의를 녹화할 수 있는 장소가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해당 학부 전공과목은 그곳 시설을 활용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스튜디오 4개와 프로듀서 1인을 기본으로 하는 동영상 촬영실을 새롭게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설비용 8천만 원에 인건비가 더해지는데, 이 정도의 예산은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만들어나감에 있어서 응당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 배상.

5. 허남건 후보 답변

서강대학교 제16대 총장후보로 등록한 기계공학과 허남건 교수입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 오늘까지 답변을 달라고 하셔서 기다리실 것 같아 메일을 씁니다.

질의한 사항은 11월3일 소견발표회에서 대부분 다루어 질 내용입니다.

공식적인 소견발표회 전에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을 듣고 싶은 내용은 소견 발표회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